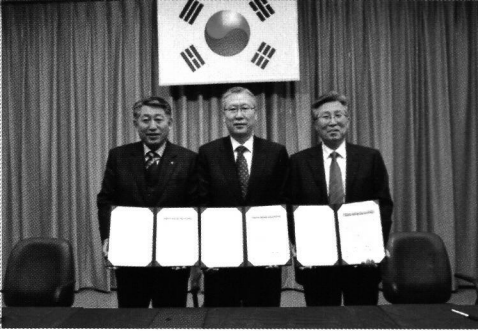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집중 감소 총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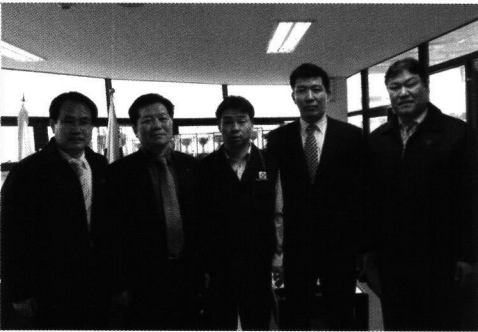
전국 150여개 산업안전보건 유관기관들이 지난 3월 5일 공단 교육원 강단에 모여 '2012년 안전보건 위탁사업 성과계약 체결식 및 재해예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전 분야, 보건 분야, 위험기계 분야, 건설재해예방 분야 등 우리나라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한 모든 재해예방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인식하고, 투철한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실천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신진규 회장, 안전보건공단 백현기 이사장, 대한산업보건협회 박정일 회장 등은 각종 안전보건유관기관을 대표하여 '안전보건관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서부지회, 화상전문 병원과 상호 협력키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지회(지회장 박용석)와 화상전문병원인 (주)메티컬그룹 베스티안병원(대표이사 김경식)이 지난 3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화상질환 예방관리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인 협약 내용은 ▲화상질환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 ▲화상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 공동 추진 ▲장사 및 인력·기술 지원 ▲건강검진 및 진료 편의 제공 등이다. 경기서부지회 박용석 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화재 폭발로 화상사고를 입는 근로자들이 많다"라며 "병원에서 이들에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지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성남지회(지회장 양향열)는 지난 3월 13일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허원 의장, 이천지부 정상영 의장, 이순갑 사무처장 등을 비롯해 이천지역 사업장내 위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남, 이천, 하남지역 사업장들의 재해 현황을 검토하고, 협회와 노총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협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파하는데 중점을 뒀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성남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노총 관계자 및 사업주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북지회,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사무국장 권혁무)는 지난 3월 14일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각계의 결의를 모은다는 취지로, '2012년 안전기원제 및 결의대회'를 대산 봉화대(청주 산성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지청장 정정식) 및 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등의 기관 관계자와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정정식 청주시청장은 "이번에 모아진 결의가 우리지청 관내 모든 사업장의 무사고와 무재해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 한노총 충남지역본부 MOU체결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신진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의장 정근서)는 지난 3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협회 신진규 회장, 한노총 충남지역본부 정근서 의장 등 대표자들과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기관은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충남지역 사업장에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 안전문화 확산 차원에서 캠페인 등도 공동 실시기로 했다. 신진규 회장은 “협회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충남지역 산업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지역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서 의장은 “이번 협약이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임시총회에서 신임 관리이사 선출



협회는 지난 2월 24일 산업안전연수원에서 2012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관리이사에 전재성 前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을 선출했다. 전재성 신임 관리이사는 대구고등학교, 경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공직에 입문, 그동안 춘천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북부지청 관리과장, 대구청 근로감독과장 및 노사지원과장, 서울청 산업안전과장 및 노사지원과장, 부산동부지청장, 서울강남지청장, 의정부지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전재성 신임 관리이사는 “관리이사로서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현장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임원선출과 관련해 신진규 협회장은 “협회가 재해예방의 선도적인 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임원선출이 협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 새출발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북부지회(지회장 윤철상)는 최근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번지(연수동 1368)로 확장·이전하고, 지난 3월 9일 현판식 및 개소 이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을 비롯한 주요 협회 임직원과 박영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김영수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 의장, 황의춘 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장, 명제선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장 등 내·외부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신진규 회장은 “이전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 관내 사업장에 선진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면서 “협회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익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최고의 종합안전컨설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회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 개최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천지회(지회장 채수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 인천북부지청(지청장 황병룡) 등과 함께 지난 3월 16일 인천 계양산에서 산재예방 결의대회 및 안전기원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북부지청 황병룡 지청장, 홍광열 산재예방지도과장, 중부고용노동청 이정인 산재예방지도과장 등과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한전 KPS,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동부제철, CJ 제일제당 등의 안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지회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고용노동관서와 안전유관기관, 대표기업들이 모여 산업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와 산업현장 관계자들 간의 정보교류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